

1930년대 상하이영화황제, 김염**

曹福禮

<목 차>

머리말

1. 김염의 생애
 2. 상하이로 건너간 김염
 3. 김염의 두 여인, 왕런메이와 친이
 4. 김염의 스승과 친구들
 5. 김염의 항일성향
 6. 김염의 영화세계
 7. 영화계 은퇴후 김염
- 마치는 말

머리말

중국에 디엔잉(電影)이라는 명칭으로 영화가 도입된 시점을 1896년으로 본다면 벌써 100여 년을 훌쩍 넘겨 버렸다.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영화는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키며 한 문화의 변화를 재촉하였다. 한국영화 역시 1899년부터 도래의 시기를 잡는다면 중국영화와 별반 다름없이 그 역사와 발전을 같이한다. 한국에서 극영화가 그 체제와 구성요소를 견비하기까진 1920년대에 와서 이루어졌으니 그 시기는 정치와 사회적 혼란기로 예술가와 함께 영화인들에게도 고난의 기간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1920년대는 일본 제국주의치하로서 일본에서 유입된

* 北京玄宇藝術大學 招聘教授

** 본 내용은 2003년 1월호 상하이<電影新作>에 증문으로 요약되어 실린 바 있다. 동시에 미국 영화학술지인 ASIAN CINEMA/2003 fall&winter호에 영문번역되어졌다.

영화 기술과 자본으로 인한 작품에 대한 주도권은 물론 그들에게 있었다. 한국영화 전반에 걸친 일본의 검열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식민치하의 한국영화는 누구나 짐작이 갈 정도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수난의 시기에 나온규가 <아리랑>을 1926년에 발표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고는 하나, 일제 강점기에 민족정서를 제대로 표현할 만한 좋은 작품을 창출해 내기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국외로 그 뜻을 펴고자 나간 한국영화인들이 있다. 굳이 유학파란 명칭을 부치지 않더라도 그 1930년대 상하이(上海)는 한국영화인들에겐 동경의 영화도시였다. 이 시기와 맞물려 나타나는 한국영화인들 중 정기탁 감독, 이경손 감독, 한창섭 촬영감독, 배우인 전창근과 김일송이 있다. 그들이 찾은 상하이의 화려한 영화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약 톱스타에 오른 인물이 한국출신의 중국배우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김염이다. 김염은 꽤 오랫동안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 동안 드문드문 거론되긴 하였는데 1995년 '영화예술지'에서 작고한 이영일이 언급했던 상해망명파(上海亡命派)가 그들을 의미한다. 그 이듬해인 1996년에 일본기자가 자료수집에 의해 쓰여진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이란 책을 국내에서 번역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다지 주목받진 못했다. 1996년 한국방송사(KBS)의 '일요스페셜'에 김염에 관한 특집 내용이 보도되면서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한국영화인들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듯하였다. 몇 해가 지나 상해파(上海派)란 명칭으로 2001년 안태근이 저술한 석사논문 속에 상하이의 한국영화인에 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로 보여진다. 그리고 2003년에 와서 김염의 후손에 의한 '상하이 올드 데이스'란 단행본이 발행되자 KBS는 '책을 말한다'에서 김염에 관한 내용으로 방영을 한 것이 국내에 소개된 김염에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염의 영화를 대형화면에서 처음 본 것은 작년 타이완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한 애정과 의무<戀愛與義務>란 필름이었다. 서울에서 FIAF의 개최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염의 흑백무성영화가 일반인들에게 선 보인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이들이 김염의 수려한 외모에 한번 놀랐고 지금 보아도 어색함이 없는 매끄러운 연기에 또 한번 놀랐다. 그 이후 중국전영자료관과 베이징영화대학에서 김염

의 영화를 접하게 되자 그의 영화목록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영화제명을 제외한 고유명사는 본토의 발음표기를 하되 < > 안에 한자원어를 넣었다.

이미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고유명사는 습관적인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다.

영화제목은 한글발음 후에 <영화명, 감독, 제작연도>순으로 한자원어를 기입한다.

영화제목이 반복되는 경우 < > 속의 영화명의 원어만 기입한다.

1. 김엽의 생애

김엽(1910.4.8-1983.12.27)은 중국에서 진이엔(金焯)으로 통용되는 김덕린(金德麟)의 예명이다. 중국전영자료관에서 영어자막을 갖춘 영화, 도화읍혈기 <桃花泣血記, 卜萬蒼, 1932>를 보았는데 레이몬드 킹(Raymond King)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김엽은 연세대학 세브란스 제1기 졸업생이었던 한국 초창기 외과 의사인 김필순(1878-1919)의 셋째 아들이다. 김엽이 아직 한국어도 읽히기 전에 부친 김필순은 5남 2녀와 노모를 모시고 1912년 열 식구가 북만주의 통화(通化)로 이주한다. 여기에서 또 다시 북쪽인 흑룡강성 치치하얼(齊齊哈爾)로 이동하였는데 김엽의 유년시절은 이곳에서 보낸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2살 때 북만주로 건너가 항일운동가인 부친과 애국운동가인 친지들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다. 김엽의 부친은 그 동안 독립투사들의 자금줄에 섰던 장본인으로서 한국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 망명은 곳이 곧 북만주이다. 그 일은 타국에서도 계속되었으니 자신의 가족을 위한 재산을 축적할 틈도 없었다. 비교적 부유했던 유년도 잠시하고 9살 때 부친의 죽음을 맞아 김엽의 사춘기는 곧 가난으로 탈바꿈한다.

김엽은 소년시기에 영미연초공사(英美煙草公司)에서 메이란팡(梅蘭芳, 1894-1961)이 여장하여 출연하고 감독했던 천년산화<天女散花, 梅蘭芳, 1920>란 선전용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미래를 꿈꾸었다 한다. 급작스런 부친의 별세로 가족은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빨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1923년 김엽소년은 상하이의 고모댁

에서 9개월간 공부한 후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으로 건너가 큰형과 함께 잠시 머무른다. 당시 13살이었던 김염은 상하이에서 머물렀을 적에나 지난(濟南)에서 형과 함께 동거할 적에도 항상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6년간을 치치하얼에서 상하이로 또다시 지난으로 떠돌던 김염소년은 상하이의 고모부인 김규식이 텐진(天津)의 北洋대학(현재의 텐진대학) 교수로 부임하자 텐진의 고모댁으로 다시 합류한다. 이곳에서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접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키웠는데, 난카이(南開)중학에서 15살의 김염은 20살의 대학생 조선청년 김산(金山 1905-1938)¹⁾을 잠시 만나기도 하였다. 이즈음 텐진에서 중고교를 다니면서 영화배우가 된다면 부르게 될 예명까지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을 정도이다. 즉 존경하는 루쉰(魯迅)의 소설, 납함(納喊)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급기야 루쉰의 이름을 그대로 따 진쑤(金迅)으로 지었다가 '타오르는 불꽃'이란 의미로서 진이엔(金焰)으로 굳힌다. 김염의 사춘기 시절 동안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독립운동가이며 지식인이었던 고모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예정된 사실이었다. 김염은 텐진에서 아직 학업을 마친 상태가 아니었으나 배우가 되려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여 재가출을 감행한다. 1927년 상하이행 배편에 오른 것이다. 타지에서서의 예견된 고생에도 불구하고 김염은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당시 근대화의 교두보였던 대도시인 상하이로 발길을 향한다.

2. 상하이로 건너간 김염

1927년 초봄 17세의 김염은 영화배우의 포부를 안고 단돈 7원 여비를 들고 상하이로 건너온다. 이곳 영화사인 民新影片公司의 잠역부로서 갖은 고생을 견딘다.

1) 김산은 본명이 장지락(張志樂)으로 1919년 중국으로 건너와 공산당에 입당한 한국인이다. 1937년 옌안(延安)에서 님 웨일즈를 만나 자신의 혁명노선을 피력하였다. 신문기자인 님 웨일즈는 그가 간직한 김산에 대한 기억을 '아리랑'이란 저서를 훗날 공저의 형식으로 펴내기도 하였다. 김염이 한창 배우로서 활동하던 1938년에 옥사를 당한 혁명가이다.

그 후 2년 동안 목란종군<木蘭從軍, 侯耀, 1928>에선 병정으로, 열혈남아<熱血男兒, ?, 1929>에서 대장간 도제로서 단역에 출연한다. 이 단역을 유심히 보아 오던 쑨위(孫瑜 1900-1990)²⁾ 감독은 무성 무협영화 풍류검객<風流劍客, 孫瑜, 1929>의 주연으로 김염을 발탁한다. 첫 주연급인 <風流劍客>은 흥행 실패로 끝났으나 두번째 작품에서 또 다시 주연배우로서 김염을 과감히 선택한 감독이 바로 쑨위이다. 흥행실패에도 불구하고 야초한화<野草閑花, 孫瑜, 1930>에 김염을 주연급으로 출연시켜 급기야 영화계의 큰 인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 바로 쑨위감독이다. 이 영화에서도 1920년대 후반부터 톱스타의 자리에 이미 올라 있던 란링위와 열연을 하였는데 이 영화는 흑백무성영화시기의 걸작으로 대흥행을 거두었다. 그의 빼어난 외모와 넘치는 연기력을 높이 산 쑨위 감독은 드디어 일류 배우로서 중국영화계에 김염을 우뚝 세워 놓은 것이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던 시기가 주로 김염의 영화활동의 전성기이다. 1930년대를 전후로 무성시기에 유명했던 배우들에게 유성영화기의 변화는 적잖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 북방에서 건너 온 김염은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영화에 데뷔하기 전 이미 중국 표준어로 연극무대에서 대사를 멋들어서 구사한 것이 상하이 본토배우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³⁾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김염은 유성영화시기를 맞아 그 어느 중국배우들보다 돋보인 것이다. 그는 음색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뛰어나 매우 강렬하고 투쟁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을 듣게 된다. 일찍이 김염의 재능을 간파했던 쑨위(孫瑜)감독은 김염의 연기의 비밀은 그가 조선인으로서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저항정신에 있다고 한 바 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은 김염의 어투와 동작을 모방하여 유행시키기도 하였다.

상하이의 1930년대는 트로이카 여배우가 있었다. 디엔잉황후(電影皇后)로 불리는 후디에(胡蝶 1908-1989)는 추산원<秋扇怨, 陳鏗然, 1925>에 뛰어 난 연기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 해에 전영여명성<電影女明星, 邵醉翁, 1926>에서

2) 쑨위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뉴욕영화연구소에서 수학한 유학파 지식인으로 란링위(阮玲玉 1910-1935)과 김염을 발굴한 1920-30년대의 유능한 감독이다.

3) 그 당시 상하이 배우들은 지방 사투리에만 익숙해져 표준어를 따로 배울 정도였다.

도 주연으로 출연하여 중국의 서민층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배우이다. 특히 자매화 <姊妹花, 鄭正秋, 1934>에서 쌍둥이로서 1인 2역을 해내어 많은 화제를 모았다. 김염과 7편이나 주연을 맡은 환링위(1910-1935)는 중국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8편의 영화에서 출연하였던 천이엔이엔(陳燕燕, 1916-)도 대로 <大路, 孫瑜, 1934>에서 주연급으로 급상하여 중국 10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이 세 여배우가 1930년대 트로이카를 이룬 것이다. 후디에를 제외한 환링위와 천이엔이엔은 김염의 상대역으로서 명성을 날린 여배우들이다.

3. 김염의 두 여인, 왕런메이와 친이

왕런메이(王人美 1914-1987.4.12)는 처음엔 조연으로 시작하여 쑨위감독에게 주연급으로 발탁된 여배우이다. 그녀는 후난성(湖南省) 장사(長沙)출신이다. 교사였던 부친 밑에서 자란 왕런메이의 큰오빠는 독일유학생으로 주은래와 주덕(朱德)과 절친했던 인텔리였으나 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다. 둘째오빠는 북벌군에 가담하였는데 국민당에 쫓겨 상하이로 건너올 때 왕런메이 자매를 데리고 온다. 왕런메이의 본명은 왕수시(王庶熙)로 13세부터 중화가무단(中華歌舞團)의 전신인 상하이 메이메이(美美)학교에서 가무를 배웠다. 그녀는 '작은 선생'으로 불릴 하며 동료를 가르칠 정도로 가무단에서 노래와 무용에 뛰어났다.

은한쌍성 <銀漢雙星, 史東山, 1931>에서 리리리(黎莉莉)가 김염과 주연을 맡을 당시 그녀는 조연이었다. 쑨위(孫瑜)감독으로부터 주연 제의를 받고 들장미 <野玫瑰, 孫瑜, 1932>에 출연한다. 판에 박힌 연기자들의 부자연스런 연기에 신물난 중국 관객들에게 자연스런 그녀의 개성있는 표현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4-5작품을 거쳐 어광곡 <漁光曲, 蔡楚生, 1934>에 출연하였는데 최고의 주연급 여배우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된다. <野玫瑰>에서 톡톡 튀는 개성파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에서 김염과 사랑을 하는

사이로 연기했던 것이 실재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부의 노래'를 동시녹음으로 삽입해 넣었던 <漁光曲>은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 이는 중국영화사에서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의 그랑프리를 안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왕런메이 역시 국제적인 스타로서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된다. 풍운아녀 <風云兒女, 許幸之, 1935>와 장지룡운 <壯志凌云, 吳永剛, 1936>에서 영화 스토리의 탄탄함과 어울린 왕런메이의 다듬어진 노래는 일품이다. <壯志凌云>에서 김염과 함께 출연한 22살의 왕런메이는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힘이 있는 여성상을 추구한다. 그 당시 청순가련령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여인의 대명사로 통한다. '들장미' 혹은 '들고양이'란 칭호를 받으며 저항할 줄 아는 다부진 표현을 멋지게 해낸 배우가 바로 왕런메이이다. 실재로 그녀의 성격에서도 옳다고 믿는 바를 그대로 주장할 줄 아는 당당함이다. 너그러운 면까지 지닌 여배우이자 김염의 아내였다.

왕런메이는 결혼하면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금기를 깨고 김염과 결혼 이후 황금의 커플로서 더욱 전성기를 누린 여배우로서 중국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배우이다. 성격은 솔직하고 낙천적이어서 김염의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과는 대조적인 편이었다. 1934년 1월 1일의 신년축하파티에서 <野玫瑰>의 감독인 쑨위가 그들의 결혼을 선포하였다. 이 두 스타의 결혼식은 그 당시 일제의 침략과 국민당의 혼란기에 맞게 이루어진 간소함을 반영한 것으로 각 신문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염과는 1934년 아들을 낳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첫아들을 잃어 그들 사이엔 자식이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은 만주에서 상하이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상하이의 영화인들에게 자유로이 영화를 만들 여건이 아니었다. 왕런메이 역시 항전시기의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1944년 10여 년의 김염과의 결혼생활도 파경을 맞는다. 왕런메이는 김염의 서신을 통해 이혼을 요구받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1944년 김염과 왕런메이의 파국은 당시 중국의 정치적 격변기의 혼란으로 보기보다는 성격차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왕런메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가정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김염과는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회고집에서 김염과 이혼 이후 한번도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인 화가와 재혼하였으나 영국유학생중이던 젊은 중

국여인과 사랑에 빠진 남편으로 인하여 40대 이후 행복하진 못했다. 왕런메이는 1930년대의 최고의 여배우로서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김염과 결별 이후 그렇다 할 영화작품도 없이 중년기를 보낸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김염과의 사랑을 추억처럼 안고 지내다 김염이 사망한 4년 만인 1987년 4월 12일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나이는 73세였다.

1947년 왕런메이와 이혼 후 3년 동안 방황하다 1947년 재혼한 부인이 바로 친이(秦怡 1922-)이다. 그녀의 본명은 친더허(秦德和)이다. 친이의 최근작품으로 몽비몽(夢非夢, 岑范, 1993)이 있는데, 얼마 전 한국교육방송에서 방영하여 본 적이 있다. 정신지체자인 딸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고된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친이는 극 중 어머니 역이었다. 영화 속의 딸은 곧 현존의 아들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지 그녀의 표정 연기는 일품이었다. 실재적 경험에서 나온 감정 표현은 관객의 가슴을 몽글하게 만들었다. 이 영화에서 친이는 김염의 가까운 친구인 리우츄(劉琼 1913-2002)⁴⁾이 친이의 상대역을 맡았는데 그의 연기도 아주 리얼하여 작품의 실감도를 더하고 있다. 김염과 재혼한 친이는 왕런메이와 같이 밝고 낙천적인 면은 같으나 비교적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드리는 성격에다 인내심이 강한 여인이란 점에서 김염과 별 마찰이 없이 살았다. 그녀의 인터뷰에서 둘은 서로 싸울 일이 발생해도 다툰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의 요즈음 젊은이들은 70여 년 전의 흘러간 중국흑백영화를 잘 모른다. 중국젊은이들에게 30년대 영화황제인 김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김염의 부인인 친이(秦怡 1922-)는 영화원로라기보다는 위대한 모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정신지체자인 50을 훨씬 넘긴 김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진지에(金捷 1948-)가 정신질환을 일으킨 지 40여 년 넘게 지극 정성 돌봐 온 끈뭇함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영화의 명맥과 8순을 넘긴 나이에도 노배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베이징에서 중국중앙방송에 비친 80세의 친이는 중국의 저명한 정치가, 주은래(周恩來)가 격찬하고 총애했던 여배우답게 당당하고 우아하다는 느낌을 안겨 주었다. 원이(文藝)사롱⁵⁾에서 친이를 만났는데 부군의 출생지역인 서울에서 온 손

4) 김염과 친이의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였던 리우츄를 일본인들은 '중국의 케리쿠퍼'라 불렀다.

5) 1930년대부터 연예인들이 주로 찾던 아지트이자 상하이의 문화명소이다.

님을 위해 장시간의 인터뷰에 서슴없이 용해 주었다.

4. 김염의 스승과 친구들

김염이 가장 존경한 인물은 저서를 통해 만난 루쉰(魯迅 1881-1936)⁶⁾과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티엔한(田漢 1898-1968)이다. 형제 같은 우의로 김염과의 교류가 밀접했던 티엔한은 세 명의 모던여성<三個摩登女性, 卜萬蒼, 1932>의 각본을 쓴 사람이다.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김염에게 직접 가르치고 보여준 스승으로 간주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는 국민당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사상적 자유를 갈구한 선봉자였다. 어느 당파에도 거부한 그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김염의 정신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한 맥락이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것도 거부했던 티엔한은 <三個摩登女性>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할 생각이었으나 국민당의 연금상태하에서 직접 감독을 해내기엔 무리였다. 그래서 부완창(卜萬蒼)이 감독하고 그는 시나리오만 넘기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그의 또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모성지광<母性之光, 卜萬蒼, 1933>이다. 그는 왕런메이가 주연한 풍운아녀<風雲兒女, 許幸之, 1935>에서 그 유명한 '의용군행진곡'을 작사하기도 하였다. 이 곡은 요절한 음악인, 중국의 국민작곡가, 니에얼(聶耳 1910-1935)이 작곡하여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애국가(愛國歌)가 되었다. 티엔한은 국민당의 탄압을 거쳐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항상 요조인 물로서 주목을 받았다. 문혁시기에 많은 영화인이 숙청당했는데 그 무리 중에 죽임을 당한 불운의 감독이 바로 티엔한이다. 그와 김염의 인연은 거슬러 올라가 1927년경이다. 상하이에서 첫 입사했던 민신영화사(民新影片公司)에서 김염이 해고를 당하자 연극무대에서 활동하게 도와 주었던 사람이 티엔한인데 그는 김염의 예술적 지도자로서 김염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자릴 잡는 인물이다.

6) 앞서 제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의 예명을 루쉰의 저서에서 따 올 정도였다.

친구로서 절친한 우용강(吳永剛) 감독(1907-1982)은 여생을 마칠 때까지 가까이 지낸 동료이다. 그밖에 김염의 후배로서 티엔팡(田方 1911-1974)⁷⁾이 있는데 정권리(鄭君里)와 함께 문화대혁명기에 희생된 배우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성립기에 이데올로기영화를 제작하는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그의 부인, 위란은 1930년대 명배우로서 활약하다 1966년 영화인으로서 최초의 비판대에 오른다. 이에 충격을 받은 티엔팡은 몸이 쇠약하여 1974년 63세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티엔팡장은 이 과정을 지켜보다 훗날 그 아픔을 그려낸 영화를 만든다. 즉 푸른연<藍風箏, 田壯壯, 1993>이 바로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사실적인 촬영기법으로 문화대혁명의 모순과 아픔을 드러냈다. 이 영화는 중국정부의 미움을 받아 상영금지 판정과 함께 10여 년의 감독중지 명령까지 받은 작품으로 남게 된다. 오히려 외국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비디오나 VCD 등으로 출시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도 비디오로 쉽게 볼 수가 있다. 항상 지하전영(地下電影)⁸⁾이란 중국의 독립영화를 거론하게 되면 그 리스트에 예시되는 영화가 바로 <藍風箏>이다. 이와 같이 장칭의 박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영화인들이 적지 않았다.

2세부터 중국에서 성장했지만 부모가 한국인이고 북한이나 한국, 미국 등지에 흩어진 친지들이 한국인으로서 서신을 자주 보낸 점으로 보아, 분명 김염의 정신과 마음은 한국이란 출생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각별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하이에 건너와 활약했던 한국영화인에 대한 김염의 관심은 남달랐다. 1932년 따중화(大中華)영화사소속이던 정기탁 감독(1905-1937)⁹⁾을 당시 좀더 활발

- 7) 현재 중국에서 활약중인 제5세대 감독 티엔팡장(田壯壯1952-)의 부친이자 중국 여배우, 위란(于藍 1921-)의 남편이다.
- 8) 중국영화는 지하, 지상이란 단어가 앞에 붙는다. 즉 중국광파전영총국의 허가를받지 못하거나 아예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영화를 총칭하여 지하전영이라고 말한다. 마마<媽媽, 張元, 1991>에서부터 푸른연<藍風箏, 田壯壯, 1993>, 인생<活着, 張藝謀, 1994>, 동궁서궁<東宮西宮, 張元, 1995>, 소무<小武, 賈樟柯, 1997>, 도시천당<都市天堂, 唐大年, 1998>, 귀신이온다<鬼子來了, 姜文, 1999>, 북경자전거<17歲的單車, 王小帥, 2000>, 산청수수<山清水秀, 甘小二, 2002>등이 이러한 영화에 속한다.
- 9) 평양출생인 그는 미곡상의 부호의 아들로 평양에서 1920년 출생했다. 서울 배재고 출신으로 2년 만에 중퇴하고 1922년에 상하이로 건너간다. 그러나 1925년 상하이에서 다시 귀국하여 그 당시 초창기 한국영화선배인 이경손 감독과 함께 제작, 주연을 맡는다. <개척자, 이경손 1925>, <산채왕, 이경손, 1926>에서 첫부인, 김정숙과 배우로 출연하였다. 이혼이후 여배

히 움직였던 리엔화영화사(聯華影片公司)에 소개한 사람이 김엽이다. 그는 비록 한국어를 읽히기도 전에 한국을 떠났으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부인 친이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만든 김치는 중국영화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기억될 정도로 솜씨가 뛰어났다고 한다. 김엽이 손수 만들어서 항아리에 묻었다가 초봄에 꺼내 먹어 본 그 맛을 두고두고 칭찬하였다고 전한다.¹⁰⁾ 그의 전성기엔 상하이의 조선인학교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1951년엔 무용가인 최승희(崔承喜 1911-미상)¹¹⁾와의 친분을 유지한 점으로 보아 본인이 항상 한국출신이란 점을 항상 의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1952년 북한을 방문하여 모친을 상봉한 것 이외에 출생지인 한국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였다.

5. 김엽의 항일성향

김엽의 항일성향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국만리 만주를 거쳐 중국의 화려한 도시, 상하이 영화계에 입성하기까지 극에서 극을 잇는 인생역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항상 자유를 추구하고 억압을 거부하는 김엽의 성격은 영화 화면에서도 중국배우와 색다른 느낌을 남겨 준다. 한국출신배우로서 갖는 독특한 표현력과 내면에서 샘솟는 강렬한 이미지는 수많은 중국관객의 마음 깊숙이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였고 이는 관객을 사로잡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항일성향이 강한 부친, 김필순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투사들에게 헌납할 정도로 반일정신이 투철한 인물로 알려져 있

우 김일송과 함께 상하이로 건너가 애국혼<愛國魂, 鄭基鏞, 1928>을 만들었다. 상하이에서 그는 운파란 예명을 쓰기도 했는데 12편의 작품 중 8편에선 감독을 맡았고 10편에선 주연을 맡고 있다. 대표작으로 흑백, 무성(聯華影業公司)영화인, 상하이여, 안녕<再會吧 上海, 鄭云波, 1934>이 있다.

10) 2002년 가을 상하이 인터뷰 내용중에서.

11) 1967년 숙청소식이 전해진 후 확실한 사망연대는 알 길이 없다. 11차례 베이징공연시 경극의 대가인 메이란팡이 자택으로 초대할 만큼 아시아, 유럽전역에 한국의 춤을 알린 무용가로서 유명하다.

다. 이러한 반일정신의 투철함은 훗날 김염의 작품 취향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김염의 전반 작품은 대부분 반봉건과 항일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부친은 만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조달했던 행적뿐 아니라 그의 사촌들 중엔 독립투사인 김마리아 등 항일운동에 앞장선 인물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가족사는 영화인으로서 김염에게도 항일적인 색채를 깊게 드러내고 있다. 1931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전국이 살얼음판이었고 북쪽엔 9.18 만주사변이 터졌다. 이러한 국난의 위기에 영화배우로서 김염은 자신의 브로마이드를 팔아 항전기금으로 낼 정도였다. 게다가 남달리 반일정신이 투철하여 일본인이 상하이 점거 당시 일본영화의 출연제의를 받자 단호히 거절하였다. 더 이상 그들의 회유와 협박을 감내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었던 1937년 제2차上海事變 당시, 첫 부인인 왕런메이와 함께 홍콩으로 피신까지 단행한다.

6. 김염의 영화세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당원도 공산당원도 아닌 자유인이었기에 김염은 중국 영화사에서 30년대의 연기와 배우로서 존재하게 된다. 주로 작품도 30-40년대에 30여 편이 만들어졌다. 선전영화의 색채가 짙은 공산당 성립 이후엔 겨우 6편만을 찍었을 뿐이다. 신체적인 지병이 은퇴요인이지만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틀에 박힌 연기를 거부한 그의 예술성향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염이 남긴 약 40여편 중의 주로 VCD로 중국내 출시된 영화를 중심으로 김염의 영화세계를 엿보기로 한다.

야초한화

〈野草閑花, 孫瑜, 1930〉 흑백, 무성(聯華電影公司)

주연 : 金焰, 阮玲玉

〈野草閑花〉중 김염(가운데) 관링위(왼쪽)

〈작품내용〉

뢰이무짱(懶木匠)부부가 피란도중 굶어죽은 한 여자의 시체 곁에 잠든 아이를 데려와 양녀로 삼는다. 16년이 흘러 뉘이무짱(劉繼群)은 상하이에 거주하는데 부인은 사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친딸과 양녀(阮玲玉)는 길에서 꽃을 판다. 양녀, 리리엔(麗蓮)은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청년(金焰)으로부터 구조를 받는다. 이 청년, 황운(黃雲)은 부잣집 아들로 음악도였다. 항상 봉건가정의 정략결혼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그는 양녀를 사랑한다. 이를 부친이 알아채고 집으로부터 쫓아내 버린다. 양녀의 아버지는 그 청년을 집으로 받아 들여 함께 기거한다. 양녀가 음악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음을 알고 청년은 경비까지 끌어들어 양녀를 위한 가극공연을 마련한다. 그녀의 명성이 날리게 되자 그들의 애정도 더욱 깊어져 약혼하기에 이른다. 이에 청년부친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반대를 한다. 급기야 이모, 고모까지 양녀의 집에 쳐들어와 협박을 가하고 이에 못이긴 양녀는 미친 척하며 청년을 단념시킨다. 청년은 영문을 몰라 괴로워하다 '들풀 속에 핀 천막한 꽃'과 같다고 리리엔에게 폭언을 내 뱉고 사라져 버린다. 훗날 청년은 하인으로부터 그녀의 애뜻한 내막을 알게 되자 다시 돌아가 사랑을 이룬다는 스토리이다.

〈작품특징〉

봉건체제하에서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랑이야기이다. 비천한 신분의 여인과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과의 결합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애정과 의무

<戀愛與義務, 卜萬蒼, 1931> 흑백, 무성(聯華電影公司) 152분

주연: 金焰, 阮玲玉

<戀愛與義務>중 환링위와 김염

(작품내용)

대학생 리주이(李祖義)는 이웃집여대생, 양나이판(楊乃凡)과 사랑을 하게 된다. 8시 반까지 가야하는 학교를 일부러 30분씩 지각하며 등교길의 데이트를 즐긴다. 프로포즈를 하기도 전에 그는 부모의 강요로 유학을 떠나고 그 사이 양나이판阮玲玉분)은 귀족가문인 황따런(黃大任)에게 시집을 가야만 한다. 리주이(金焰분)는 귀국하여 공원을 산책중인 옛사랑을 조우하게 되는데, 그녀의 1남1녀 중 어린아들이 연못에 공을 던지려다 익사함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인연으로 둘은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날 청년은 야반도주를 요구한다. 이 제의에 여인은 자식과 옛 연인을 두고 고민하다 실신한다. 실신한 그녀를 안고 청년은 도주하여 어느 시골마을에 정착한다. 그들은 평얼(平兒)이란 딸을 낳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년은 폐병으로 죽게 된다. 15년 후 황따런(黎英분)은 유명한 작가가 되어 빈민구제사업까지 하는 유명인으로서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양장점에 납품하던 양나이판은 옛집을 찾아가게 무대복을 만들려고 재단사로서 찾게 되나, 너무나 늙고 초라한 그녀를 전남편을 알아보질 못한다. 이에 상심한 그녀는 강에 빠져 목숨을 끊게 된다. 그녀가 남긴 두 통의 편지는 평얼과 전남편에 대한 부탁의 서신이다. 이에 전남편은 평얼(陳燕燕분)을 친자식들과 함께 양육하며 한가족의 의무를 다해낸다.

(작품특징)

이 영화는 2002년 4월 23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주최한 제58차 FIAF(국제영상자료원연맹총회)에 초대된 작품이다. 사랑만큼 그 의무 또한 소중함을 역설한 영화

이다. 이 영화는 판령위(阮玲玉)가 1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연기를 담아내고 있다. 양나이판의 20대에도 출연하여 1인2역을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집사(劉繼郡 분)역의 아주 코믹하면서도 능청스런 행동으로 영화의 재미를 돋구어 준다.

은한쌍성

<銀漢雙星, 史東山, 1931> 흑백, 무성(聯華電影公司) 100분

주연: 金焰, 紫羅蓮, 王人美

은한쌍성<銀漢雙星>중 김염과 즈루어리엔(紫羅蓮)

<작품내용>

어느 별장 앞에서 영화촬영을 하다 별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모든 스탭들은 귀를 귀기울인다. 드디어 음악가의 딸(紫羅蓮 분), 리르잉(李日英)은 이들의 제의로 당현종의 가무극 <樓東怨>에 출연하게 된다. 그녀와 함께 출연한 주연배우는 양관즈(楊傳之/金焰 분)이다. 양관즈는 촬영도중 리르잉과 사랑에 빠지나 그는 이미 부모가 정해준 처가 있다. 이 여인을 보내주기 위해 일부러 딴 여자과 놀아나는 행동을 드러내고 그녀는 그를 잊지 못해 그 별장에서 독신으로 지낸다. 늘고 병들어 양관즈는 그녀의 별장을 찾으나 차마 들어서지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린다.

<작품특징>

이 영화에서 각본을 쓴 주스린(朱石麟)은 <戀愛與義務> <續故都春夢> <桃花泣血記>에서도 훌륭한 스토리를 구사한 천재이다. 이 영화엔 상하이의 부촌의 풍광이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골프치는 모습과 오픈카의 등장, 변화가의 화려함이 듬뿍 실려져 있다. 김염과 즈루어리엔(紫羅蓮)의 춤추는 모습 또한 일품이다. 특이한 일은 영화에서 감독역으로 분장한 蔡楚生은 훗날 <漁光曲, 蔡楚生, 1934>과 <新

女性, 蔡楚生, 1934>에서 실제 감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戀愛與義務>에서 감칠맛 나는 코믹언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던 리우지권(劉繼郡)은 다른 영화에선 악역연기까지 잘 소화낸 일급 조연배우이다.

[속]고도춘몽

<(續)故都春夢, 卜萬蒼, 1932> 흑백, 무성 (聯華電影公司)

주연 : 金焰, 阮玲玉, 陳燕燕

<續故都春夢> 중 阮玲玉와 주버선(周伯勛)

<작품내용>

주자지에(朱家傑)은 가족을 거느리고 하남성 고향으로 낙향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 북벌군이 쳐들어와 주자지에는 잡혀가고 부인과 아들딸은 난민수용소로 보내진다. 딸(陳燕燕분), 주잉(朱瑩)은 겁탈을 당할 뻔하나 다행히 탈출에 성공한다. 주자지에는 적십자에 들어가 간호원이 되는데 혁명군 부상병(金焰분)인 황구어승(黃國雄)을 만나게 된다. 주자지의 첩(阮玲玉분), 이엔이엔(燕燕)은 딴 남자와 놀아나다 주자지에게 발각된다. 그 후 그녀는 군벌대대장(周伯勛분)의 情婦로 들어간다. 주자지에는 그 대대장의 신임있는 부하이다. 즉 옛 애첩이 대장의 정부로서 자리가 바뀐 것이다. 주자지에는 황구어승을 찾아가 대대장을 몰아내자고 한다. 이를 눈치챈 이엔이엔은 대대장에게 알려주자. 연회를 열어 주자지어를 독살하라고 한다. 옛 남편에게 독주를 권해야만 하는 이엔이엔은 차마 따르지 못한다. 이에 격분한 대대장은 현장에서 그녀를 총살해 버린다. 이 급박한 상황에 황구어승의 군대가 밀려 들어와 주자지를 구해낸다. 이런 혼란이 지난 후 주자지에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한적한 가정으로 되돌아간다.

〈작품특징〉

완링위(阮玲玉)의 연기는 절정에 달아, 중국최고의 톱스타로서 자리매김을 한 작품이다. 고도춘몽(故都春夢)은 1930년에 쑤위가 감독하고 완링위와 천이엔이엔이 주연했던 영화가 있다.

도화읍혈기

〈桃花泣血記, 卜萬蒼, 1932〉 흑백, 무성(聯華電影公司) 80분/영문자막

주연 : 金焰, 阮玲玉

〈桃花泣血記〉중 金焰과 阮玲玉

〈작품내용〉

김(金)부인과 그녀의 아들(金焰분), 더은(德恩)은 함께 목장에 틈을 내어 내려간다. 여기에서 더은은 목장관리인, 은친(殷勤)의 딸, 린구(琳姑/阮玲玉분)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부친은 문벌집안을 내세워 목장관리인의 딸과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 수년 후 다시 목장을 방문한 청년은 더욱 그녀를 흠모하게 된다. 이에 부친은 더은을 문벌가와 결혼을 시켜버리려 한다. 그를 쫓아 도시까지 찾아온 린구를 김부부는 시골로 내쫓아 버리려 한다. 이를 눈치챈 더은은 린구와 동거를 시작한다. 김씨는 더은을 집에 감금시키고 목장관리인까지 해고해 버린다. 목장관리인의 아내는 병들어 사망하고 관리인은 살길이 막막하다. 어느 날 목장엔 도둑이 들어 소들을 잃게 되자 목장관리인은 온 힘을 다해 도둑과 싸운다. 이때 도둑이 뿌린 석회가루로 눈이 멀게 되고 그 와중에 린구는 더은의 아들을 낳게 된다. 그녀도 병에 시달리나 너무나 가난해 병치료는 엄두도 낼 수가 없다. 더은이 다시 목장을 찾았을 땐 이미 린구가 세상을 달리 한 채, 아들만 남아 있다. 더은의 부친은 모든 용서를 빌며 관리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린구의 무덤 앞에 엎드린 더은 애절한 눈물만 하염없이 짓는다.

〈작품특징〉

긴 머리의 판링위의 피어오르는 아름다움과 연기의 원숙함이 한결 돋보이는 작품이다. 부유한 신분인 김염의 연기는 청순한 판링위와 콤비가 되어 아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漁光曲, 1934>에서 주연으로 급부상할 한란근(韓蘭根 1909-1986)의 조연연기 또한 풍부한 화면을 장식한다.

들장미

<野玫瑰、孫瑜, 1932> 흑백, 무성, (聯華電影公司) 80분

주연 : 金焰, 王人美

<野玫瑰>에서 김염(좌1)과 王人美(우1)

〈작품내용〉

상하이의 교외에서 사는 어부의 딸(王人美분), 사오핑(小鳳)은 아버지와 강가의 정크선에 기거한다. 모친을 잃고 부친과 어렵게 사는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미술학도(金焰분)인 장파(江波)와 사랑에 빠진다. 장파의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그들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가난한 생활은 그들을 어렵게 만든다. 겨울의 실업과 굶주림은 그림을 팔아 생활하기엔 역부족이다. 장파가 병들고 밀린 방세까지 겹쳐 사오핑은 추운 겨울날 취객의 돈지갑을 소매치기한다. 함께 기거하며 간판을 그리는 리선생(鄭君里분)과 장애인인 친구까지 모두 네 사람은 서로가 소매치기라고 우긴다. 이에 경찰은 장파와 리를 감금한다. 사오핑은 장파를 구하기 위해 장파부친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한다. 다시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영문도 모르고 감옥에서 석방된 장파는 귀가한다. 몇 달 동안의 방세를 미리 지불하고 사오핑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러나 상해사변이 발발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중국국민은 필기대회를 한다. 중국의용군에 가담하여 항일테대대열에서 선장파는 그 대열에서 사오핑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일본의 만주침략에 저항하는 의용군에 참가하자!'는 슬로건을 외치며 행진은 계속된다.

〈작품특징〉

김염과 출연한 이 영화에서 王人美는 16세의 톱스타로서 각광을 받았다. 한동안 이 영화에서 얻은 그녀의 칭호인 '들장미'로 넘치는 인기를 독차지한 영화이다. 즉 가냘픈 그 당시 중국여배우의 모습을 청순가련형을 벗어나, 왕런메이(王人美)는 당당하고 진취적인 활기있는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영화과 출신의 유학과감독, 쑤위(孫瑜)는 이 영화에서 가무단 출신의 왕런메이를 일약 톱스타로 만든 영화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1930년대의 상하이 그 당시 거리에서 오피카와 오토바이 등 부유층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 한편 상하이근교의 가난한 어부촌의 일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진솔한 삶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성시지야

〈城市之夜, 費穆, 1932〉흑백, 무성, (聯華電影公司) 100분

주연 : 金焰, 阮玲玉

〈城市之夜〉에서 환링위(왼쪽)와 김염(가운데)

〈작품내용〉

도시의 한 빈민가에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한 처자(阮玲玉분)는 부두에서 일하는 부친과 어린 남동생을 부양하며 산다. 한 재력가가 이 마을의 철거민을 내쫓고 사옥장으로 만들려고 들어온다. 이 철거주의 아들(金焰분)은 철거지역을 둘러보다 이 처자의 미색에 빠져버린다. 그리하여 이 처자, 이엔이엔(燕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유혹하나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친이 심장병으로 늙게되자 처자는 속수무책으로 가난을 이기지 못한다. 철거민들은 철거소식이 밀려오자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낸다. 어느 비바람 치는 가을밤, 낡은 집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노약자들은 압사해 죽는 참사가 벌어지고, 분노에 떨던 이엔이엔은 철거주의 아들의 뺨을 후려친다. 드디어 철거의 날이 되자, 이엔이엔은 부친과 남동생을 바라보다 못해 결심한다. 하이힐을 신고 성냥재로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붉은 물감을 바르고 야밤에

몰래 외출을 서두른다. 그 때 부친은 이를 알아차리고 “차라리 이럴 바엔 함께 죽어 버리는 게 낫다”고 통곡한다. 창밖엔 설움을 삼키듯 빗줄기는 하염없이 퍼붓는다.
(작품특징)

비토리오 데시카의 <밀라노의 기적>처럼 철거민의 애환을 그린 스토리이다. 1930년대의 상하이 철거민의 애환을 아주 심도있게 그린 작품이다. 주로 부유한 가정의 선량한 도련님 역을 많이 연기했던 김염은 이 영화에선 비열한 지주의 아들로서 독특한 연기의 폭을 넓히고 있다.

세 명의 모던여성

<三個摩登女性, 卜萬蒼, 1932> 흑백, 무성(聯華電影公司) 80분

<三個摩登女性>에서 김염과 환령위

(작품내용)

장위(張榆)는 계약결혼에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다. 그는 東北지역에서 상하이로 가출하여 영화계에 투신한다. 영화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장위(金焰 분)는, 남방에서 온 한 아가씨(黎莉莉 분), 우위(虞玉)와 사랑을 한다. 1931년 9.18만주사변이후 애정물 영화는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던 차, 전화교환수(阮玲玉 분), 저우수쥘(周淑貞)으로부터 영화장르를 애국영화로 바꿀 것을 제의 받는다. 원래 이 아가씨는 부친의 주선으로 계약결혼을 할 뻔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는데 그녀 역시 이런 관습이 싫어서 만주사변 후 모친과 상해로 이주해 온 터이다. 1932년 제1차상해사변이 발발하자 장위도 전선에 나아간다. 이 전선에서 백치미가 있는 한 여인(陳燕燕 분), 전루어잉(陳若英)을 만나게 된다. 전선에서 부상을 당해 후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차 다시 전화교환수와 만나게 된다. 간호로서 적극적인 애정표시를 한 저우수쥘에게 장위는 청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은 그녀는 청혼에 쉽게 응하진 않는다. 전쟁이 끝나고 영화 한편을 전루어잉과 찍게 되는데 여주인공이 자살하는 장면에서 영화와 실재를 구분하지 못한 이 백치미가

씨는 자살해 버린다. 우위와 저우수쨩 사이에서 교체를 하던 장위는 어느날 노동자계층의 투사로 변한 저우수쨩을 초대한다. 상해 상류사회인 카지노, 만찬회장등을 선보이자 이에 저우수쨩은 부두, 공장, 빈민촌을 보여 준다. 둘은 이해와 함께 사랑이 깊어가고 바로 저우수쨩이야말로 '이지적이고 용감하며 대중화된 여성이 바로 신근대 여성이다'라고 장위는 외친다. 장위는 노동운동가로서 그녀를 지지하며 한 동지로서 저우수쨩과 함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다.

(작품특징)

진취적인 여성을 그린 봉건시대의 막을 내리고 신중국의 여성상을 모색한 영화이다. 김염의 일생과 어느 만큼 비슷한 줄거리가 이채롭다. 이 영화에서 랑령위는 자신을 그 배역에 넣어 달라고 직접 부완창(卜萬蒼)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¹²⁾ 청순가련형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당당한 여성의 강인함을 보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 로

<大路, 孫瑜, 1934> 흑백, 무성, (聯華電影公司) 77분/영문자막

주연 : 金焰, 鄭君里, 劉暉

<大路>에서 김염과 정권리(鄭君里)

(작품내용)

어릴 적 기근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은 20세가 되어 군사도로를 닦는 청년들의 대열에 선다. 이들은 상하이에서 실직한 6인의 청년들이다. 배경은 항전시기인데 항일전쟁중 군사도로를 닦기 위해 동원된 청년들로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다.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동판에서 떠도는 1930년대 중국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들 중엔 신체건강한 청년, 진겨(金哥/ 金焰)와 거칠고 우둔한 장따(張大) 등 6인이다. 유일한 안식처는 식당에서

12) 영화 완령옥 <阮玲玉 關錦鵬, 1991>을 보라.

일하는 두 여인 덩상(丁香/陳燕燕)과 모리(茉莉/黎莉莉분)가 반겨주는 모습이다. 태양이 눈부신 도로포장공장에서 그들은 따루꺼(大路歌)인 '위대한 길의 노래'를 부르며 군사도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눈치 챈 일본군은 협박과 회유를 거듭하나 그들은 저항을 계속한다. 도로는 일본의 폭격기로 인해 폭파당하여 그들은 장렬히 전사한다. 일본의 계속된 공습으로 청년들은 죽어 가고 그들의 반일정신은 흠모하던 처녀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 길이 복구되어 군용차들이 지나가자 덩상과 모리는 마치 진꺼와 그 동료들이 되살아 난 듯 감회에 젖는다. '위대한 길의 노래'는 계속 울려 퍼지며 막은 내린다.

<작품특징>

김염이 1인 2역(주인공과 그의 부친역)한 그의 대표작으로 생동감과 리얼리즘을 밀도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니에얼(聶耳 1912-1935)¹³⁾이 작곡하고 쑨위감독이 직접 작사한 '따루꺼(大路歌)'인데 아직도 중국인들의 애창곡으로 불리운다. 이 작품은 1935년 설날상영작을 하세편(賀歲片)이라 불리우는데 상하이에서 절찬리에 개봉되었다. 그러나 장재스(莊介石)정권하에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붉은 좌익적 색채가 짙다하여 江西省에선 필름이 불살라지기도 했던 영화이기도하다. 1930년대의 흑백영화지만 알몸의 청년들이 냇가에서 미역을 감는 모습을 처녀들이 훑쳐보는 장면은 꽤 인상적이어서 그 당시 많은 관객들의 회자에 오른 명작이다.

장지름은

<壯志凌云, 吳永剛, 1936> 흑백, 유성(聯華電影公司) 100분

주연 : 金焰, 王人美, 施超, 田方

<壯志凌云>에서 김염

<작품내용>

1920년대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향을 등진 난민들이 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된다. 농민 왕씨도 딸과 함께 기근이 심한 고향을 떠나 변방의 개척지로 간다. 길 가던

13) 니에얼은 <母性之光, 卜萬蒼, 1935>과 <風雲兒女, 田漢, 1935>에서 작곡을 담당했던 중국의 저명한 혁명작곡가이다.

길에 만난 사내아이인 고아, 순얼(孫兒)을 거두게 된다. 10년 후 마을은 살약가기에 부족이 없이 변하지만 도적떼는 자주 몰려온다. 순얼은 장성하여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된다. 친딸, 헤이뉴(黑妞/王人美분)는 양자 오빠인 순얼(金焰분)과 사랑하는 사이지만 마을 청년 티엔더허우(田德厚/田方분)도 헤이뉴를 사랑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도적떼가 쳐들어와 이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이 싸움에서 헤이뉴와 그녀의 아버지(施超분)는 죽게 된다. 태평촌을 꿈꾸던 이 마을은 도적떼의 침범으로 초토화가 되나 마지막까지 싸우는 순얼의 절규는 계속되며 영화는 그 막을 내린다.

<작품특징>

<大路>와 같은 항일영화로서 이 영화는 원래 일본침략에 항거하는 것이 주제였다. 그러나 동북지역에 활거하는 일본군을 자극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국민당이 꺼렸다. 검열에서 난관에 부딪치자 대본을 일제침략에서 봉건군벌로 바꾸어 시대배경이 1930년대에서 1920년대로 바뀌게 되었다. 상하이 조계지내에선 일본의 영화상영 검열까지 있어 가위질 안한 필름을 상영하다 일본인이 검열하러 오면 얼른 컷한 필름으로 바꾸어 상영했다 한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프린트를 불살라 버렸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항일영화란 것을 눈치 채 중국인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시 신문과 잡지의 지면에서 대호평을 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 30여분 경과하면 헤이뉴와 순얼의 뚜엣으로 노래가 펼쳐지며 자연의 아름다운 시골의 경관과 어우러진다. 특히 부친으로 나오는 스차오(施超)의 원숙한 연기는 볼 만하다. 티엔더허우를 맡은 티엔팡(田方)은 현재 제5세대감독인 티엔주양주양(田壯壯)의 부친이며 중국의 유명 여배우로서 현존하는 중국아동계편창의 창장인 위란(于藍)의 남편이기도 하다.

낭도사

<浪陶沙, 吳永剛, 1948> 흑백, 유성 100분

주연 : 金焰, 章志直

<浪陶沙>에서 金焰과 장즈즈(章志直)

〈작품내용〉

무인도에 두 구의 남자 사체가 보인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선원이 배를 타다 귀가하는 길에 아내의 부정을 목격한다. 아내의 정부를 살해하고 도망을 하나 자신의 딸애를 보고자 다시 집을 찾는다. 계속해 추적하는 라오짱(老章/章志直분)은 원양선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는 아룡(阿龍/金焰분)을 발견한다. 체포하려는 순간 원양선은 안개로 침몰하여 둘은 무인도에 흘러든다. 서로를 불신하며 대립을 하나 식량과 물이 떨어지자 죽음을 의식한 두 사람은 공생을 위해 살아남는 법을 위해 협조하게 된다. 어느 날 망망 대해에 배 한척이 지나가자 순간 라오짱은 자신이 형사로서 아룡을 체포하며 신분을 인식한다. 그러나 배는 알아채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고 둘은 서로가 묶인 채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비극이다.

〈작품특징〉

장즈즈(章志直)는 환링위 주연의 〈神女, 吳永剛, 1934〉에서 악역으로 분한 성격과 명배우이다. 이 영화에서도 김염을 쫓는 형사역으로 개성있는 연기를 잘 소화해 내고 있다. 그 당시의 영화적인 배경으론 좀 색다른 장르로서 이 영화에서 김염은 살인자로서 도망자인 숨가쁜 역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승룡쾌서

〈乘龍快婿, 張駿祥, 1948〉 흑백, 유성

주연 : 金焰, 白楊

〈乘龍快婿〉에서 김염과 바이양(白楊)

〈작품내용〉

일본항전에서 승리하자 루부인(陸太太)의 큰딸, 원란(文蘭/路珊분)의 약혼자, 스투이엔(司徒炎/金焰분)이 충칭(重慶)에서 上海로 부임해 온다. 장래의 사위가 큰 지위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며 영접을 서두른다. 그러나 루부인의 둘째딸, 원후이(文惠/白楊분)는 중경출신은 탐관오리들이라는 선입견에 그 형부의 부임을 못마땅해

한다. 막상 상면하게 되자 이러한 관점은 뒤바뀌게 된다. 스투이엔이 전직 가난한 기자출신임을 알게 되자 큰딸과 루부인은 그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다. 큰딸은 약혼 반지를 돌려주며 그를 냉대하나, 둘째 딸은 정직하고 선입견과 달리 스투이엔이 좋은 사람임을 금새 알아차리고 그와 가까이 하게 된다. 스투이엔은 신문사를 경영하며 둘째딸과 항주(杭州)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작품특징)

일본제국주의 대항한 영화에 자주 출연했고 김염 자신의 가정환경에서 오는 항일정신을 대변했던 영화중의 하나이다. 중국 30년대 3대 명배우중의 한 사람인 바이양(白楊 1920.3.4-1996.9.18)의 자연스런 연기를 감상할 수 있다.

7. 영화계은퇴후 김염

김염은 텐진(天津)의 난카이(南開)중학시절부터 김염은 축구, 농구, 수영 등 스포츠는 물론 그림, 바이올린, 하모니카 등 예술적 소질이 풍부한 청년으로 친이는 김염을 두고 '모든 예술적 성향을 갖춘 보기 드문 천재배우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당시 배우들은 대부분 마르고 외소한 체구였고 다소 여성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선이 가는 배우들과는 대조적으로, 체격이 건장하여 근사한 용모에다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자태가 돋보인 배우가 김염이다. 게다가 강렬한 눈빛으로 혼신을 다하는 강한 카리스마는 못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밤잠을 설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부자연스럽다 못해 규격화된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를 벗어버리고 사실적이고 자연스런 연기를 구사한 김염의 매력은 그의 영화에서 몇 장면만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간다. <野草閑花>에서 환령위와 대홍행 이후 <野玫瑰>에선 왕린메이와 <戀愛與義務>에선 천이엔이엔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들의 상대역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인기정상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함께 했던 김염의 우수한 작품은 주로 1930년대 초반부터 40년대 후반에 몰려 있다. 이에 따른 김염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는데 한 남성팬이 사인을 받으려다 말고 김염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란 칭호를 부를 정도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은

배우가 김염이다. 영화황제란 호칭은 디엔성(電聲)이란 영화잡지에서 처음 거론되었다. 1932년 총 3612명에게 투표를 실시한 바, 가장 좋아하는 배우(1205표), 가장 잘 생긴 배우(1196표),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배우(1211표)에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영화사에서 디엔잉황띠(電影皇帝)란 전후무한 칭호를 받은 배우는 드물다. 친이는 이런 동급의 중국배우로서 자오판(趙丹), 바이양 그리고 김염을 들고 있다.

친이가 인터뷰에서 진술한 김염의 성격은 딱 내성적이어서 주로 말수가 없었다고 한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김염은 감독이나 스태프와 친숙한 편은 아니었다. 자신의 영화에 대한 조건이나 제의를 서슴지 않게 하였으니 감독들이 김염을 만만한 배우로 다룰 수가 없었다. 너무나 많은 영화에 대한 조애가 있어 그 당시 쏟아져 들어 온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비평도 정확히 해내는 것을 친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항상 '영화는 관객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염은 친이에게 말하곤 했다.

김염의 취향으로 미루어 보아 우용강(吳永剛) 등 몇몇 친한 친구를 제외하곤 비교적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만을 유지했던 김염은 훗날 문화대혁명기에 강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지 않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항일정신엔 누구보다도 투철한 애국심을 발휘했으나 그렇다고 국민당의 당원이 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원이 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편승은 하지 않았다. 그가 '자유로운 예술가'로서 길을 가려 했던 배우로서의 자세와 고집은, 어떠한 당과 집단에도 가담하지 않으려 했던 점과 어쩌면 일맥상통할지도 모른다.

병의 악화로 1960년대 초반에 영화계를 은퇴한 김염도 문화대혁명이 터지자 일반적인 영화인들과 마찬가지로 상하이의 격리수용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하방되었다. 1930년대 란핑(藍蘋 1914-1991)이자 훗날 모택동의 부인이 된 장칭(江青)은 삼류배우로서 영화란 <王老五, 蔡楚生, 1937>에서 주연으로 출연을 한바 있으나, 주로 무대배우로서 더 어울리는 배우였다. 영화계에서 김염과는 출연한 적도 없어 친분이 거의 없었다. 직접적인 김염에 대한 탄압은 적었지만 문화대혁명기에 김염의 아들은 정박아의 증세가 더 심화되었다. 김염은 운명당시 이 외아들에 대한 恨으로 몹시 괴로웠다고 그의 부인, 친이(秦怡)는 밝히고 있다. 이러

한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은 너무 많다고 친이는 진술하고 있다. 문혁 당시 10대 후반의 김첩(1948-)은 현재 50대 중년이 되어 필자와 만났다.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어 보였다.

마치는 말

지금도 중국영화사의 본문에선 30년대의 영화중 걸작들이 거론될 적마다 김염의 영화가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그가 한국인의 부모를 둔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미국이나 중국에선 30년대 최고의 배우로서 기록과 평가 속에 남겨져 있다. 면 우리의 연구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 김염의 작품성향은 항일과 반봉건에 대한 개혁이 주류를 이룬다. 앞서 말했듯이 1930년대가 그의 출연작품의 편수로나 영화홍행면에서 김염의 황금기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성립되면서 그의 영화출연편수나 김염의 배우로서의 위치는 위축된 감이 적지 않다. 이렇듯 김염의 후반기인 1950대 초기부터 배우라기보다는 이미 중견으로서 배우들의 복지나 선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짙다. 일찍이 출세를 하여 그의 자리가 확고해진 점은 병이 들어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약해졌으나 항상 그가 영화계에서 머물게 한 이유이다. 영화보다는 이 시기에 김염은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30년대 명성에 힘입어 배우 극단장을 맡고 있었다. 이 직위는 항일전쟁중 상하이에서 일한 영화인과 각지에서 온 배우들의 생활을 돌보는 일이었다.¹⁴⁾

1950년부터 과음으로 인한 위병으로 인해 배우생활이 힘들어지자 작품수의 축소뿐 아니라 일찍 찾아온 지병으로 사실상영화인으로서 활동을 1958년부터 접게 된다. 1962년 급기야 중국영화계를 은퇴하기에 이른다. 그가 가장 하고자 했던 건축설계는 이 당시 소일거리로 시도하였다. 그 외에 집에서 도장을 직접 각인하여 지우들에게 선물하거나 목공과 금세공을 하며 소일했다. 상하이의 화동병원에

14) 스킨스네카스(이상 번역),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 실천문화사, 1996, 219쪽

서 고질병이었던 위수술을 단행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이러한 활동마저 제한을 받게 된다. 병세의 악화로 김염은 각혈까지 하며 거동은 더욱 힘들어 거의 누워 지냈다고 친이는 기억한다. 내성적인 성격의 김염과 가장 가까이 지낸 친구가 우용강(吳永剛 1907-1982)¹⁵⁾ 감독이다. 우용강 감독이 먼저 별세하자 앞뒤를 다투며 세상을 달리한다. 김염의 나이, 73세로 1983년 12월 27일이었다. 그의 비문엔 '진보적 영화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사실 반세기를 지나도록 엄연한 사실이지만 한갓 떠도는 토픽과 기사거리로 남을 뻔했던 김염의 활약상을 조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흘러 버렸다. 점점 더 관련자료들은 다수 소실되거나, 설사 있다 해도 여기저기 흩어져 데이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염의 필름추적과 그의 행적을 바로 세우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부정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김염을 증언해 줄 생존자들이 남아 있는 지역이자 김염의 활동무대였던 상하이, 장춘(長春), 하얼빈, 베이징은 물론, 심지어는 필름이동을 확인한 바 있는 타이완(臺灣)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와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칫 잊혀질 뻔한 상하이의 한국영화인 연구에 이 자료가 불씨를 당겼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參考文獻>

국외도서

1. 程季華, 中國電影週報, 1989.
2. 程季華, 中國電影大辭典, 1996.
3. 楊村, 中國電影三十年, 香港, 1954.
4. 倪震, 改革與中國電影, 中國電影出版社, 1994.
5. 李少白, 電影歷史及理論 文化藝術出版社, 1991.
6. 麗蘇元, 中國無聲電影社, 中國電影出版社, 1996.
7. 張德林, 京劇藝術教程,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8. 中國映畫史, 三十年中國電影評論選, 中國電影出版社, 1993.

15) 문화대혁명때 우파로 지목되어 이후 극영화 감독으로서 지위를 빼앗겼다. 그의 대표작은 환령위주연의 <神女, 吳永剛, 1934>가 있다.

9. 羅藝軍, 中國電影理論文選 1920-1989, 北京, 1992.
10. 花軍, 第五代導演, 北京, 1988.
11. 舒曉鳴, 中國電影藝術史教程, 中國電影出版社, 北京, 1996.
12. 中國電影發展史, 中國電影出版社, 1963.
13. 沈寂, 一代藝人阮玲玉, 陝西出版社, 1985.
14. 新中國電影50年,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5. 胡國彬, 新中國電影意識形態(1949-1976),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5.
16. 陳弘石, 中國電影社, 文化藝術出版社, 1998.
17. 程樹安, 中國電影演員辭典, 北京, 1993.
18. 鍾雷, 50年來的中國電影, 臺北, 1965.
19. 張德林, 京劇藝術教程, 上海, 2000.
20. 杜亞雄, 中國傳統音樂概論, 北京, 2000.
21. 徐燕云, 中國戲劇史, 上海, 2001.
22. 孫瑜, 銀海乙舟, 上海文藝出版社, 1987.
23. 崔慶擇, 金焰小傳, 연변인민출판사, 1990.
24.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역사연구소, 1975.

국내도서

1. 스희스네카쓰(이상 번역),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 실천문화사, 1996.
2. 슈테판크라마(황진자 번역), 중국영화사, 이산, 2000.
3. 후지이 쇼오(김양수 번역),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 지호, 2001.
4. 한국영화총서(1903-1970), 한국영화진흥조합간, 1972.
5. 한국영화자료편람(1919-1976), 영화진흥공사, 1977.
6. 안중화, 韓國映畫側面秘史, 현대미학사, 1998.

< Abstract >

In 1902 he was born in Seoul as Kim Duck-lin and was well known as Jin Yan in China. Jin Yan was also called Raymond King in *Tao Hua Qi Xue Ji* (1931, subtitled in English).

In Spring 1927, when he was 17 years old, Jin Yan went to Shanghai to

become a movie actor with only 7 RMB in his pocket. He worked hard in the Shanghai Entertainment Pictures as a laborer.

In 1930, Jin Yan starred in the movie, Ye Cao Xian Hua with Ruan Ling-yu, already a big star. The film was successful and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s of the black-and-white silent picture era. Director, Sun Yu recognized Jin Yan's attractive appearance and his acting ability.

Most of Jin Yan's works were based on and centered around his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and eagerness to reform feudalistic society.

Jin Yan died December 27, 1983, when he was 73 years old. On his epitaph, there is a sentence: He was the most powerful actor influenced in the progressive film industries.